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8 AUTUMN

VOL.11

SPECIAL COLUMN

저금리 시대에 각광받는 대체투자

NOW

도시재생사업과 투자 포인트

WM센터 돌보기

자산관리의 중심으로 성장하다
울산 WM센터

i-ONE ROBO 출시기념 신규가입 이벤트!

i-ONE ROBO로 펀드 가입하면 ROBO 산타가 쿨하게 쏩니다!



이벤트 1.

- 이벤트기간 : 2018.7.27 ~ 9.30
- 이벤트내용
 - ① 행운상 : 펀드/연금포트폴리오 설계 고객(PF확정 후 로그인 완료) 중 1천명 추첨 → GS편의점 모바일상품권 3천원
 - ② 엘리버드상 : 펀드/연금포트폴리오 신규 가입 + 자동이체 설정 고객 4천명(선착순) →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
- 당첨자발표 : 2018.10월중 발표예정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확인 및 개별 MMS 안내)

이벤트 2.

- 이벤트기간 : 2018.7.27 ~ 11.30
- 이벤트내용 : 펀드/연금포트폴리오 신규 가입금액별 이벤트 자동응모 (추가입금 미인정)

- 3백만원 이상 → LG 트롬건조기
- 2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 외식상품권

• 경품

1등(1명)	2등(5명)	3등(20명)
		
LG 트롬건조기(150만원)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각 50만원)	외식상품권 (각 5만원)

- 당첨자발표 : 2018.12월중 발표예정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확인 및 개별 MMS 안내)
- (유의사항) ※ 제세공과금은 고객 별도부담이며, 본 이벤트 기간, 내용, 사은품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이벤트1]의 선착순 대상은 2018년 10월말일 기준 정상유지 계좌만 해당됩니다.
- ※ [이벤트2]의 경품 증정은 2018년 12월말일 기준 정상유지 계좌만 해당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고객에 한하여 당행에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발송됩니다.
- ※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쿠폰은 재발송 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IBK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 18-03193호(2018.07.27 ~ 2018.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 - 3441호 (2018.07.23) 게시기한 : 2018.11.30 출금번호 : FW723

•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권 취득하기 전에 투자위험, 보수 및 수수료, 환매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한 포트폴리오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은행은 고객의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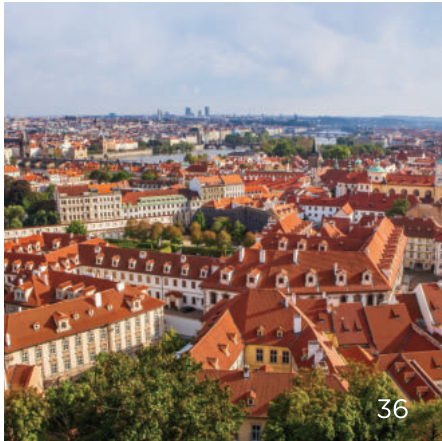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8년 9월 14일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기획 WM사업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Tel. 02-729-6423 디자인·제작·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경제·금융 정보 매거진입니다.



30



36



50

SPECIAL COLUMN

- 6 Special Column ❶ 저금리 시대에 각광받는 대체투자
- 10 Special Column ❷ 올바른 부담부증여 활용 방법

CONSULTING

- 14 Now ❶ 도시재생사업과 투자 포인트
- 18 Now ❷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 22 이지 재테크 부자 되는 첫 번째 발걸음, 목돈 만들기

LIFE

- 26 트렌드로 읽는 경제 금융도 이젠 맞춤형으로 WM센터에서 나만의 금융을
- 30 WM센터 돋보기 자산관리의 중심으로 성장하다 울산WM센터
- 34 서비스 패키지 WIN CLASS 서비스 패키지
- 36 테마가 있는 여행 맥주처럼 달콤 쌉싸름한 두 도시 체코 플젠과 아일랜드 더블린
- 42 실버 이야기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 건강관리
- 46 대중문화 트렌드 넷플릭스 한국 상륙, 그 이후
- 50 취미 더하기 가을에 즐기는 승마
- 54 이달의 추천 펀드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2018년 8월 추천 펀드

1.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PECIAL COLUMN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 · 금융 관련 사안들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 6 **Special Column ①**
저금리 시대에 각광받는 대체투자
- 10 **Special Column ②**
올바른 부담부증여 활용 방법



저금리 시대에 각광받는 대체투자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을 보이며, 전통적 투자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투자매력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전통자산 투자와는 다르게
‘대체투자’ 부문은 전망이 밝다.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 같았던
대체투자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과연 대체투자는 정확히
무엇이며 투자를 검토할 경우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투자

올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7년 자산운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대체투자펀드의 투자금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118조 원(부동산펀드 60조 원, 특별자산펀드 58조 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2014년 말 62조 원 수탁액에서 3년 사이 약 2배로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대체투자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traditional) 투자방식이 아닌 대안적인(alternative)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다른 대상'이란 주식이나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 상품을 의미하여 매우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인프라·에너지·선박·항공 등 특별자산을 총칭한다. 대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왔고, 최근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고수익 투자 선호로 국내 중심에서 해외시장으로까지 투자자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투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에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일까?

리스크 대비 리턴 측면에서의 대체투자는 주식보다 안정적이면서 채권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비해 실물이 담보로 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다. 이에 꾸준한 현금 유동성(cash flow)을 향유하면서 자산 매각 시 초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기존 전통자산 투자에 쏠리지 않고 다변화 측면에서 분산투자로 인한 변동성 감소에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또한 투자 대상도 포괄적이라 최근에는 해외 자원, 영화, 미술품, 와인 등등 범위가 다양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 검토가 탄탄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대체투자 중 하나인 항공기 펀드

여러 자산 중 항공기에 투자되는 방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 자주 타는 항공기, 공항만 가더라도 수백 대의 덩치가 큰 항공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가 되는 것일까. 사실 항공기 펀드는 국내 일반 부동산 펀드와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담보물만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항공기 제조는 전 세계적으로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데, 항공기 펀드는 이 두 회사의 민항기를 사들여 항공사에 빌려주고 임대 수익과 중고기 매각 시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배당재원은 항공기를 장기 임대하는 항공사에서 지불하는 항공기 사용료(리스료)이며, 항공사 입장에서든 고가의 구매 비용이 절약되어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리스에 의한 장기 임대방식이 유리해 이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항공기 펀드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첫째는 항공사의 신용이다. 국가에서 소유한 국적기라던가 영업이 잘되어 꾸준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대형항공사 등이 파산을 하지 않고 리스료를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둘째, 항공기 기종이다. 중고 거래가 잘 되는 항공기인지, 연비가 우수하여 항공사에서 선호하는 기종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를 관리하는 리스사도 중요한데, 항공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관리능력이 우수한 글로벌 탑티어(top tier) 회사일수록 유리하다. 항공기를 사들일 자금은 조달 시 선순위-중순위-후순위 등 변제순서로 순위를 나누어 구성하여 각 이자·배당수익률을 다르게 구조화한다. 상환 우선순위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후순위 투자의 경우 연 5~10% 수준으로 배당수익률을 보인다. 항공기 펀드는 항공기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투자기간이 길지만, 조기매각이 되어 상환될 경우 제매각 차익도 노릴 수 있다.



대체투자를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앞서 언급한 대로 대체투자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기존까지만 해도 개인이 진입하여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문이었다. 대부분이 폐쇄형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되고, 고액의 장기간 투자 형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의 위축 등으로 상황이 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상품을 찾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공모펀드와 리츠 상품들로 인해 개인들도 투자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관 투자자와 더불어 개인의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은 부동산 펀드이다.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원래부터 개개인별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친숙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를 토대로 공모상품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등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다만 이러한 대체투자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부동산펀드와 인프라, 에너지, 항공기 등 특별자산 펀드는 실물을 기반으로 하고 꾸준한 현금 유동성(cash flow)을 토대로 장기간 안정적이면서도 채권금리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기간이 길고 환매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달하는 정보가 아직 제한적이고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점,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주식형이나 채권형펀드와는 다르게 대체투자펀드 분야는 이제 시작하는 신규 자금유입처로 보인다.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신규 설정되는 펀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자금의 유입 폭 또한 다른 펀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세가 크다. 어쩌면 대체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개인 고객에는 이러한 투자 저변 확대 등 시장의 변화가 기회일 수 있다. 다만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수익률과 긍정적인 부분만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리스크를 고민하고 시장 상황의 변화로 투자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WIN CLASS



올바른 부담부증여 활용 방법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된 가운데, 세금 부담이 큰 주택 매매에 대한 대안으로 자녀로의 주택 증여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대출이나 전세를 낀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든다는 소식에 부담부증여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절세 가능한 주택 증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와 함께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또는 상대적으로 취득 당시 대비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한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부담부증여의 정의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증여 방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채무란 금융기관의 차입금뿐 아니라 향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받는 재산의 금액에서 이전받은 채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되어 상대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5억 원인 주택을 증여받겠다고 가정해보자.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가 약 8천만 원이라면 자녀가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 3억 원까지 이전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약 2천만 원(증여받는 주택가액 5억 원에서 승계한 차입금 3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한 증여세)으로 감소해 차입금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시 약 6천만 원의 증여세 절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했다고 언제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반면,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줄어드는 증여세 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해 오히려 거래당사자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이전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당 금액만큼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실제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절감 효과만 보고 증여자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효과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부담부증여, 어떤 경우 유리할까?

앞선 설명과 같이,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와 함께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또는 상대적으로 취득 당시 대비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한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이거나 상대적으로 취득 당시 대비 가격 상승이 큰 주택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로 인해 오히려 부담부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양도소득세 효과까지 반영한 부담부증여의 실익 및 절세 가능한 적정 수준의 채무액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담부증여 시 주의할 사항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전받은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실질적인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해당 거래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자녀 등 수증자가 이전받은 차입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이에 수증자가 이전받은 채무 상환 시, 동 자기에 대한 명확한 자금 출처 확보가 필요하다. WIN CLASS

CONSULTING

금융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정보를 알아봅니다.

- 14 **Now ①**
도시재생사업과 투자 포인트
- 18 **Now ②**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 22 **이지 재테크**
부자 되는 첫 번째 발걸음, 목돈 만들기



WIN CLASS
1st PRIVATE BANKING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서울로7017

도시재생사업과 투자 포인트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을 발표하였다. 원도심 지역의 행정업무, 상업, 문화관광 등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 조치를 결합하여 시행하는 중심지가형은 15곳이 지정되었고, 근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일반근린형 12곳,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정비사업과 연계가 되는 주거지지원형 10곳, 공용 주차장을 등을 지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이 14곳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 대해서는 8월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4조4,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7년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된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이 주목받는 이유

도시재생사업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도시발전정책으로 약 5년간 총 5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의 도심 개발이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규모 철거 방식이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건물을 보존하고 도로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기존 원주민들의 주거 안전은 물론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	설명
우리동네 살리기	소규모 주거 / 5만㎡ 이하 / 50억 원 /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벌이고 공용주차장과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
주거지 지원형	주거 / 5만~10만㎡ / 100억 원 / 저층 주거밀집 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일반근린형	준주거 / 10만~15만㎡ / 100억 원 / 주거지와 골목상권까지 개선하는 사업
중심지가지형	상업 / 20만㎡ / 150억 원 / 상업지와 관광지 대상

도시는 스스로 또는 외부요인에 의해 성장하면서 도시 내부에서 지역의 분화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분화과정이란 서로 유사한 기능끼리는 모여들게 되고 서로 다른 기능들은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상업은 상업끼리, 공업은 공업끼리, 주택은 주택끼리 모여 도시 내부를 재편성하게 된다. 도시가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같은 종류의 기능이 집적하거나 다른 종류의 기능이 분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지역분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구도심의 노후화와 슬럼화가 진행되어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반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신도시, 택지지구, 기업도시 등의 신도시 선호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삼성전자 고덕반도체,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힘입어 신도시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구도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다. 평택시의 구도심에 해당하는 원평동, 통복동, 세교동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아파트 단지의 분양과 입주자 집중되고 있는 비전동의 인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도시 내 신도심과 구도심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같은 도시 내 구도심 지역 학생들보다 학교 인지도나 과목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높다는 사실은 구도심의 쇠퇴가 도시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경쟁 상권의 등장,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상권 소비계층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신도심에 비해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저층 위주의 낡은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상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신도심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경쟁력이 낮아짐에 따라 등장한 도시개발 개념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방식의 도시개발방법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같은 문제를 겪었던 선진국들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시개발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면 개발방식의 도

시개발사업에 비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이 선진국에서도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트렌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문적, 물리적 특성을 잘 활용한 지역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도시재생 사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와 우리의 도시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 포인트 1² 관광 자원

관광을 통한 재생은 도시와 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 분위기 등을 활용해 외부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관광 그 자체는 재생의 목적이 아니나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외부 방문객 유치를 통한 도시관광 전략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재생의 주요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은 조선과 철강이 지역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되고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쇠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노미치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노미치역 인근의 세계 7대 자전거 도로 중 하나로 꼽히는 해안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관광시설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 오노미치는 국제 사이클 행사의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인구가 유출로 인해 도시가 쇠퇴 위기에 놓였던 오노미치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노미치역 인근의 세계 7대 자전거 도로 중 하나로 꼽히는 해안도로와 연계하였다.

투자 포인트 2 문화와 예술

문화는 한 지역의 정체성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문화 공간은 좁게는 미술관, 공연장에서 넓게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여가, 위락, 교육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는 도시재생방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략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 ‘유럽문화수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발산마을은 전쟁 후 피난민들의 정착촌으로, 1970년대 인근 방직공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방직산업의 축소와 주변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떠나고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가들의 정착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인 ‘별이 뜨는 발산마을’을 통해 지역주민의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발산마을은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이 되었다.



마을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예술 작품과의 결합을 통해 볼거리 가득한 풍경을 조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발산마을

투자 포인트 3 활용 가능한 지역상권

지역상권은 일상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소매점에서부터 음식점, 시장까지 포함한다. 이런 지역상권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에 따른 경쟁업체의 등장과 지역상권이 가지는 한계 등으로 인해 구도심지의 상권들이 하나둘씩 침체에 빠졌다.

일본 미야자키현에 위치한 니치난시 아부라츠 상점가는 2000년대 들어 공실률 증가, 유동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니치난시에서는 ‘니치난시 중심시까지 활성화 기본 계획’을 통해 상권 내 빈 건물을 주민활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빈 점포에는 30대 청년 사업가들을 모집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등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아부라츠 상점가는 2016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선정하는 ‘비상하는 상점가 3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 해군 조선소로 이용되던 미국 뉴욕의 네이비야드는 지속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는 문화, 예술,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투자 포인트 4 일자리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역 기반이 튼튼해지고, 생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도심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 주요 상업시설이 신도심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공동화 현상까지도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구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뉴욕 맨하튼 인근에 위치한 네이비야드는 1960년대까지 해군 조선소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한때 7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던 곳이었으나 1966년 폐쇄되면서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조선소 공간을 다양하게 분할하여 기업들에 제공하였고, 지속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는 문화, 예술,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네이비야드 재생 계획의 핵심 미션은 ‘고용 창출’로 네이비야드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한다. ‘선박을 만들던 곳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곳으로’

투자 포인트 5 교통

교통 인프라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서 내부의 물리적, 시스템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원도심의 경우 버스터미널, 기차역사 등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여 왔으나 현재는 교통 기능을 제외한 상업적 역할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 중심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 인프라가 양호하고 공공성 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잠재적인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WIN CLASS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최근 주식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또다시 한 달 만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분쟁은 상존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달러 강세와 맞물려 위안화 절하를 고시하면서 맞서는 상황이다.





주식시장, 한 분기 앞서 바라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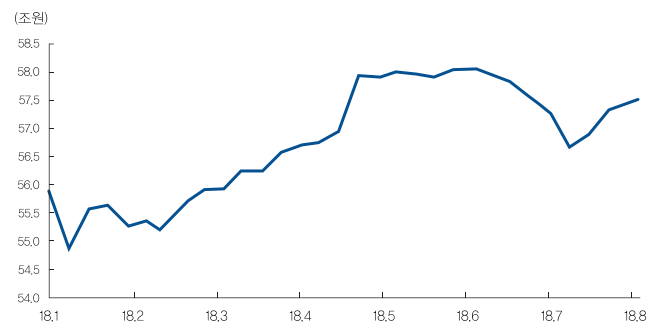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환율 역시 원화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역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경기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원화 약세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내는 수출 중심의 경기 구조이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수출주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원화 약세는 3분기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많은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외환보유고는 예상과 다르게 늘어나고 수출 역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즉, 당장 중국 경제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투자 및 생산 부문과 다르게 소비 부문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이며, 중국 정부가 소비 확대 정책 및 내수 부양책 등을 펼쳐 소비 시장의 양호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10월 중순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때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교역촉진법에 의해 1년간 양자협의를 가지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중단되고 중국 기업은 미국 조달시장 입찰이 금지된다. 이렇게 명시된 제재보다는 미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의 플라자 합의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위안화는 결국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역시 위안화와 연동되면서 강세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율

효과가 반영되면서 실적 역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금은 모멘텀의 부재와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 하지만 무역 분쟁에 대한 피로도가 서서히 나타나고 이보다는 실적 개선 및 수급상 우호적인 환율 등 긍정적인 모멘텀에 반응하면서 4분기 주식시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3분기 KOSPI 영업이익의 전망치



자료 : WiseFn, IBK투자증권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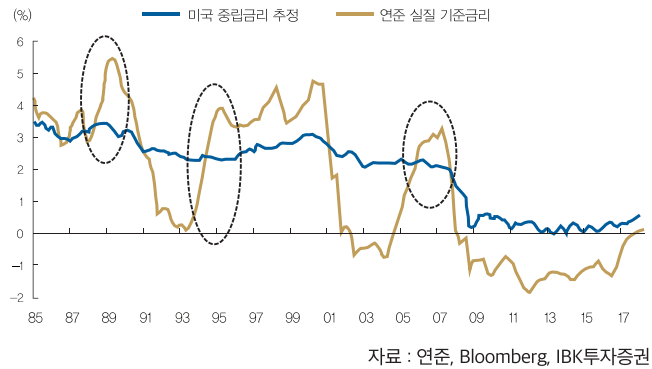
국내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대외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국내 경제는 생각보다 그리 밝지 못했다. 때문에 연초 낙관론과 달리 지금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보수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채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 호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경제 전체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꽤 빠르게 인상되고 있으나, 그와 별개로 시중금리가 상승하지 못하는 점은 경제주체들이 느끼기에 비용의 상승이 부담스러운 국면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정하는 기준과 같다.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정도의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통화정책 운용의 중심이 된다. 연준 FOMC 회의에서는 경제 전망을 통해 Longer Run(장기 전망)이라는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이는 중립금리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립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면, 연준의 최종적인 기준금리 인상 폭은 점도표에 미칠 수 없다. 만약 중립금리를 많이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면, 이는 곧 경제에 급격한 부담으로 다가와 오히려 경기 하강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인하 사이클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현재 미국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연준의 경제학자들의 논문을 살펴해보면 대략적인 중립금리 수준은 2.57%로 설정되어 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올해 말에 도달하게 되는 수준이다. 과거 연준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항상 중립금리를 2회 정도(50bp) 오버슈팅해 이루어진 패턴을 감안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최대치는 3% 정도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이마저도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연초 금리 상승을 두려워했던 시장의 기저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이미 점도표를 통해 기정 사실화됐고, 경기의 순환적 국면과 미국 외 기타 국가의 위기설을 고려해본다면 미국 인상은 스케줄보다 느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금은 비용의 증가를 우려하기보다, 비용이 불가피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꺾이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더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위기가 꼭 큰 것은 아니다. 경제의 활동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비용이 떨어지지만, 그 낮은 비용으로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새로운 위기의 모습일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전자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 중립금리와 실질 기준금리



위기에서의 투자 전략

금융시장은 현재 여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글로벌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긴축 정책,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 리스크, 영국 BREXIT,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머징 경제 및 자금 유출 확대 가능성 등이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 또는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과거 주요 위기 때 투자 자산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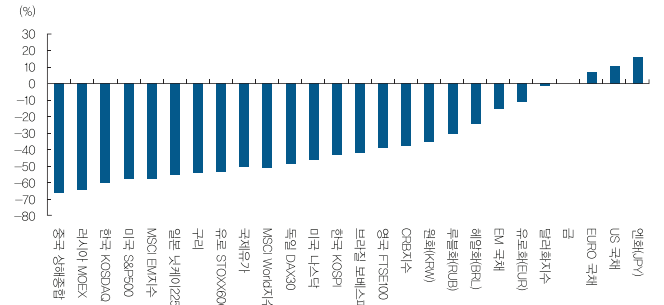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때부터 보자. 당시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은 유럽 주식이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 유럽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1999년 유로화 단일 통화 도입을 앞두고 기대가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2010~2015년 남유럽 재정 위기 겪으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화 단일 통화를 쓰기는 하지만 유로화나 유로존 국채가 안전자산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됐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유럽 주식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였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높았을까? 이때는 엔화, 미국 국채 등의 수익률이 높았다. 특



징적인 것을 미국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되면서 발발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대안이 충분치 않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채는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위기 때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는 평가절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엔화의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는 일본의 낮은 금리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황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각국의 완화 정책으로 일본의 내외 금리 차가 축소되고,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가속화됐다. 현재도 엔화 선물 투기적 숏 포지션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 엔 캐리 청산이 진행되면서 엔화의 평가절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글로벌 경제 성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주요 자산별 수익률



자산별로 위기 발생 직전 고점 대비, 위기 발발 이후 저점 기준 월말 기준 분기 평균값 사용 등락률

자료 : 연준, Bloomberg, IBK투자증권

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언제든지 위기 발발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대비해 미 국채, 엔화와 같은 위기 때 안전자산으로써 역할을 했거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IN CLASS

※ 해당 원고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원고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원고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부자 되는 첫 번째 발걸음, 목돈 만들기

최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자의 자산 기준을 묻는 질문에 1위를 차지한 금액으로 '40억 원'을 꼽았다. 하지만 이들이 평생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다고 예상한 금액은 약 '8억 원'이었다. 사실 평생 일해도 부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8억 원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들은 재테크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목돈 모으기, 적립식 펀드로 습관 들이기

20대에는 취직과 결혼을 위해, 30대에는 자녀 출산과 육아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 40대에는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 50대에는 자녀의 결혼과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간다. 평생 '일'만 해서 돈은 모으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물론 재테크에 밝은 몇몇 직장인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린다. 실제로 같은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절반가량이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나머지 절반은 재테크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한다. 1억 원을 투자해 100% 수익이 났다면 총 2억 원이 되지만 50만 원을 투자했다면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손안에 들어온 돈은 총 100만 원에 그친다. 목돈은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때문에 재테크 초보자라면 우선 목돈 만들기에 돌입해야 한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시켜 놓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목돈을 모으기가 쉽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가 1~2%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이에 다른 방안으로 적립식 펀드를 추천한다. 적립식이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20대 신입사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자산 운용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나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신경 쓸 일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물론 펀드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꺼리는 이들이 많다. 은행의 경우 적은 금리에도 원금 보장이 되지만 펀드는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지난 10년간 퇴보한 적이 없다. 수년간 박스권을 횡보하긴 했지만 방향은 우상향이었다. 실제로 국내주식형 펀드는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이 9%(한국펀드평가)에 달하고 2년 수익률은 20% 수준이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어떨까?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수익률은 1년 18.58%, 2년 36.99% 정도다.

펀드 투자 위험 줄일 수 있는 '분산 투자' 추천

물론 그럼에도 마이너스 난 펀드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예 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분산 투자'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 분산투자는 투자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전략이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시장에서 유행하는 펀드에 모든 자산을 집중 투자한다. 이 경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 본인이 손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 일부를 다른 유형의 펀드에 고루 투자했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씩 펀드에 넣기로 마음먹었다면 국내주식형 펀드 A에 2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식이다. 만약 코스피나 코스닥 하락폭이 커져 국내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도 해외주식형 펀드가 뒷받침해준다면 전체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국내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 이런 펀드들은 단 한 번도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 해외주식형 펀드가 잘 나갈 땐 국내주식형 펀드가 힘을 쓰지 못했다. 최근에는 인도와 베트남 펀드가 크게 손실을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 높다.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한 덕분이다.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종류는 다양하다. 크게는 지역이나 자산의 종류 등을 고민할 수 있고 좁게는 4차산업, 헬스케어 등 산업군을 고를 수도 있다. 최근에는 ETF 형태로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어 선택의 폭은 정말 넓다. 시작은 어렵지 않다. 오늘 당장 펀드 계좌를 개설해 보는 건 어떨까. 40억 원 부자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시작이길 바란다. **WIN CLASS**

LIFE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 · 예술 · 여행 · 인문 관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26 **트렌드로 읽는 경제**
금융도 이젠 맞춤형으로!
WM센터에서 나만의 금융을
- 30 **WM센터 돌보기**
자산관리의 중심으로 성장하다
울산WM센터
- 34 **서비스 패키지**
WIN CLASS 서비스 패키지
- 36 **테마가 있는 여행**
맥주처럼 달콤 쌉싸름한 두 도시
체코 플젠과 아일랜드 더블린
- 42 **실버 이야기**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 건강관리
- 46 **대중문화 트렌드**
넷플릭스 한국 상륙, 그 이후
- 50 **취미 더하기**
가을에 즐기는 승마
- 54 **이달의 추천 펀드**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2018년 8월 추천 펀드



금융도 이전 맞춤형으로! WM센터에서 나만의 금융을

최근 여러 시중 은행이 WM센터를 확장하며 시대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금/대출업무를 주로 하던 은행창구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고객의 자산관리를 돕는 금융의 동반자로, 은행들은 각자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듯 은행 업무의 새로운 중심은 WM(자산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산WM센터 내부 전경의 모습

증가하고 있는 WM센터

우리나라의 WM센터는 2010년대 초반까지 대개 고액 자산가를 위한 VIP 전용 서비스에 가까웠다. 하지만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WM센터의 고객 범위는 점점 확대되었고, 점차 '국민 재산 형성 및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 채널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변화가 WM센터 수요를 증진시켰다. 과거에는 억 단위 자산가들이 갭 투자 등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자산 증식을 도모했다. 하지만 점차 갭 투자에 필요한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부담이 커졌다. 자산가들은 출구 전략을 모색했지만, 단순한 은행 예치 상품은 그들에게 매력이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2금융권에서조차 3% 이상의 금리를 보장받기 어려워진 까닭이다. 주식 및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일은 은행 예치보다 수익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많은 자산가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은행의 WM센터는 그들에게 딱 맞는 투자처가 되고 있다. 해당 은행의 계열사인 증권사 및 자산관리자문센터와 협업하여, 부동산 투자 및 관리뿐 아니라 세무, 법률자문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편리함도 극대화시켜준다.

정부 정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화도 WM센터 확대를 불러왔다. 지난 2015년 10월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서 고객이 기존의 주거래은행 및 계좌를 바꾸는 부담이 줄어들었다. 각 은행은 기존의 주거래고객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및 수수료 혜택을 늘림과 동시에 WM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은행 영업점

무인점포가 확대되는 현상도 은행의 WM센터 확충을 돕고 있다.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국내 영업점은 2014년에서 2017년 말에 이르는 동안 450개나 줄어들었다. 더 이상 영업점 수가 은행의 경쟁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은행들은 기존 영업점을 통합하고 판매비 절약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며 디지털카오스크 기반의 무인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IBK기업은행 역시 올 하반기 무인점포 설치를 계획하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이렇게 기존 영업점을 무인점포로 대체하면서 은행들은 WM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점포를 신설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비이자수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WM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간 고객유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WM 상품을 차별화하는 한편, WM센터의 이용 장벽을 낮춰 유치대상 고객의 범위 확대에 힘쓰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WM센터를 통해 은행 상품과 증권 상품을 동시에 비교·선택할 수 있으며, 은행 PB와 증권사 PB의 공동상담 서비스를 통해 폭넓은 자산관리 코치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WM센터는 고객 자산관리에 특화된 점포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은행 PB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WIN CLASS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IBK기업은행은 WM센터의 고객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WIN CLASS'라는 WM 브랜드를 창설하여 컨설팅 서비스, 포트폴리오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데 묶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서비스는 VIP 고객을 위하여 음악회 초청은 물론, 경조사와 자녀 작명 서비스를 지원하고 웨딩 카에 공항 리무진 의전까지 수행하며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오랜 WM 경험을 가진 VIP 매니저가 WM센터에 상주하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울산WM센터 김수하 팀장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자산관리는 크게 금융, 세무, 부동산 분야로 나뉜다. 자산투자처를 모색하는 고객은 금융 분야를, 세대 간 상속 플랜을 마련하고 싶은 고객은 세무 분야를, 보유한 건물·토지 관리 및 새로운 부동산 매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부동산 분야에 중점을 두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WM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예약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의 경우 상담 희망일자 10일 전에 신청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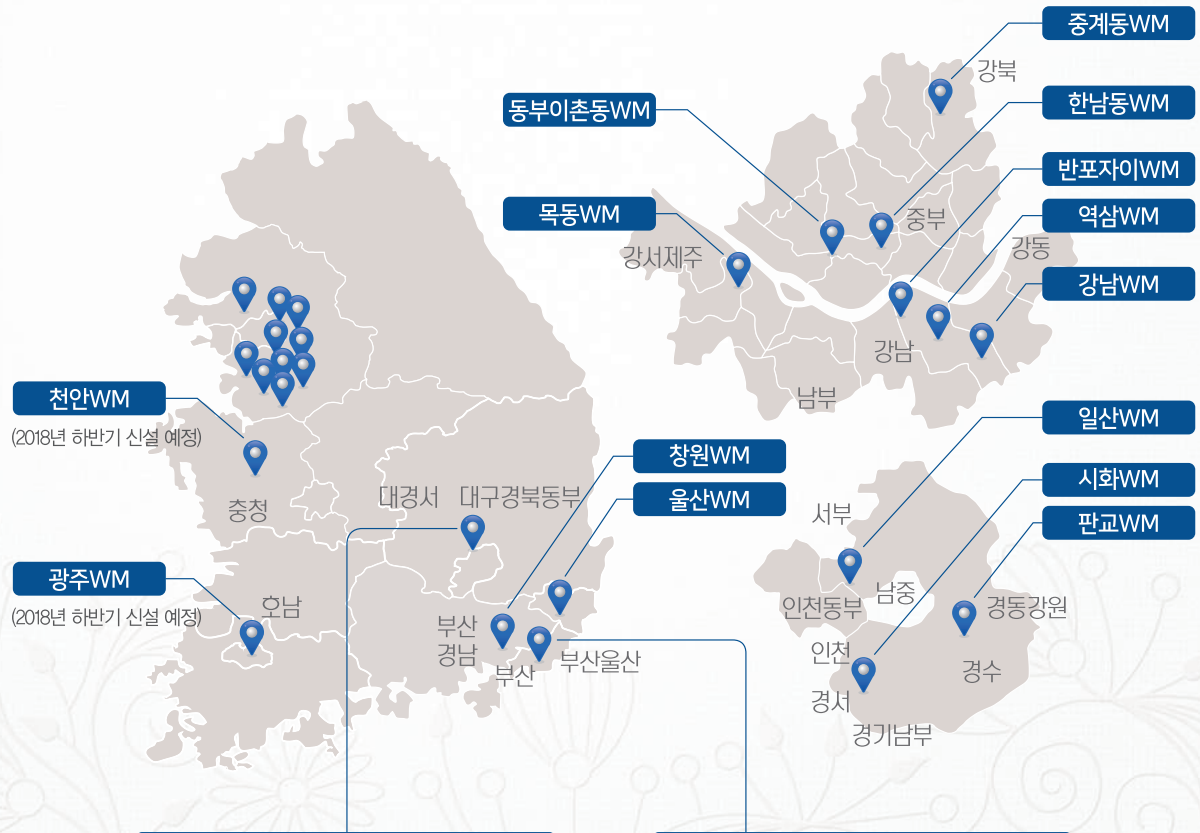
상담을 신청한 고객에게 IBK기업은행은 전문가들의 시장상황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WM전용상품을 제공한다. 고객은 DLS(파생결합증권), ELS(주가연계증권), CLN(신용연계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 중 필요에 따라 자신이 투자할 상품 및 각각의 투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고객과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IBK기업은행은 'WM전용상품 선정 및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WM 상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 'i-ONE ROBO(아이원 로보)'를 도입하여, 거액 자산가에게만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도 제공한다. 아이원 로보는 고객 정보와 투자 성향, 시장환경 등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고객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이처럼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은 WM센터를 확장하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N CLASS

전국 WM센터 위치



IBK기업은행은 올해(2018년 9월 현재) 부산·대구WM센터를 신설하고, 4개의 기존 PB센터(서울 동부이촌동, 중계동, 창원, 울산)를 WM센터로 전환하였다.



울산
WM센터

WM센터로의 첫 발걸음 자산관리의 중심으로 성장하다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 1등, 센터 설립 후 최초 흑자 전환 등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울산WM센터는 지난 7월 31일부터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점포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딱앞부터 남다른 울산WM센터는 자산관리 능력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영양분으로 쑥쑥 자라나고 있다. 변화를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울산WM센터를 만나보자.





- 1 서울 대리
- 2 고선규 센터장
- 3 김수하 팀장
- 4 서선미 대리
- 5 최영희 부센터장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일

울산WM센터는 IBK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이 위치한 건물의 4층에 있다. 고선규 울산WM센터장은 이를 '1층에 마트가 있는데, 4층에 편의점이 위치한 것'으로 비유한다. 하지만 울산WM센터를 편의점처럼 24시간 열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울산은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불릴 만큼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울산WM센터는 더 공부하고, 더 뛰는 전략을 택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저희를 믿고 울산WM센터와 거래해주시는 고객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산을 안전하게 불러야겠죠.”

그래서 울산WM센터는 진정성 있게 고객을 대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투자 상품이 나오지만, 울산WM센터에서는 실적이 아닌 고객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적이다. 이 고객을 위해 어떤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 선수가 이틀이라도 운동을 안 하면, 잔 근육이 기억을 못해서 감이 떨어진다고 해요. 자산관리영역도 이와 비슷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늘 공부를 놓치지 않고, 직원들과 다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렇게 울산WM센터에서는 고객들에게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는 예측에서부터 시작된다. 주식, 외환, 부동산, 금 등의 방향성과 변동성, 지속성을 예측해야 한다. 일례로 외환에 있어서는 모두가 환율이 떨어질 것을 예측했을 때 울산WM센터는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달러 상품을 권했고, 반대로 모두가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을 때 울산WM센터는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해 주식을 권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울산WM센터의 예측대로 늘 들어맞았다. 매일 아침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자산관리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시장에 대한 시각을 키울 수 있었고, 이런 시각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물리적인 결합에서 화학적인 결합으로

울산WM센터에서 고객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또 있다.

“고객이 바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업무를 봐주거나 우리 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울산WM센터는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는다. 매달 업무용 차량으로 4,000km 이상을 뒀 정도로 고선규 센터장의 일정은 고객들의 이름으로 꽉 차 있다. 하루에 네댓 명의 고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울산WM센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고객을 자주 뵈고, 제가 매일 공부하고 있는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고객이 어느새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자산을 맡기겠다고 먼저 나서서 말씀해주시죠.”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 1등, 센터 설립 후 최초 흑자 전환 등 굵직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성과들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성장기를 거쳐 이제는 성숙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진정한 자산관리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금융계에서도 과거와 같이 대출 중심의 영업보다는 자산관리가 더 큰 축으로 자리 잡힐 겁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후발주자였지만 지금부터 우리 IBK기업은행이 성장한다면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을 결합한 복합점포로의 변신이 필수적이었다. 현재 울산WM센터는 복합점포가 된 지 한 달이 지나 아직은 물리적 결합을 하고 있는 단계이자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화

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올해 가을부터는 울산WM센터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들을 만나서 울산WM센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권 업무와 은행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모두 반가워해요. 아무래도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증권에서 취급하는 상품 모두를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객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목표로, 한마음을 다해 복합점포로의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는 울산WM센터. 지금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는 고객들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것을 믿기 때문이다. WIN CLASS

MINI INTERVIEW



고선규 센터장

고객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또 하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만나 이제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에서도 IBK기업은행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영희 부센터장

그동안 상품의 제한이 있어서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IBK투자증권이 들어오면서 신무기를 장착한 듯한 든든함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저희의 위치를 굳혀서 '울산WM센터는 다르다'라는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하 팀장

이번에 IBK투자증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물꼬가 트인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성향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울산에서는 제일가는 자산관리금융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미 대리

울산WM센터가 복합점포가 되어 증권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센터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들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서울 대리

고객들에게 은행 상품 이외에도 증권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센터의 막내로서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WIN CLASS 서비스 패키지

IBK기업은행 WM사업부 브랜드인 WIN CLASS에서는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WIN CLASS에서는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서비스 지원은 상이할 수 있음.)



차별화된 서비스

공항 리무진 의전 서비스

지원 대상	본인 및 직계가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자택)까지 전문 운전기사의 의전 • 공항 도착 시 전문요원의 각종 서비스 제공 • 이용가능 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왕복 1회를 편도 2회로 이용 가능 • 제공 차량 : 에쿠스 리무진 등
제공 업체	(주)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 인천/김포공항은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도시(시흥, 김포, 성남, 분당, 과천, 안양, 광명, 인천, 부천, 고양, 일산, 구리, 하남), 김해공항은 부산지역, 제주공항은 제주지역 내에서만 제공 가능

웨딩카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본인 및 직계가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으로 장식된 차량으로 식당에서 공항까지 의전 • 이용가능 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제공 차량 : 에쿠스 리무진 등
제공 업체	(주)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 공항리무진 의전 서비스와 제공 지역 동일

작명 서비스

지원 대상	본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작명(입양 포함), 점포·회사명, 건물명 • 국내 유명 작명가의 추천 작명 5개(1건당), 신청 후 3일 이내 제공
제공 업체	오복작명

* 성명 선택 시 『작명증』 영업점에 발송 ⇒ 영업점장이 전달 제공 업체



경조사 서비스

지원 대상	본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가 발생한 고객에게 경사 시 축하 화환, 조사 시 조화 및 장례용품 지원 • 경사 및 조사는 중복 지원 가능
제공 업체	(주)제너두라이프



전문가 상담 개인 고객을 위한 세무, 부동산 컨설팅을 세 가지 형태로 제공



영업점 방문 TOP 서비스

- 대상 : 총수신 3억 원 이상인 개인 고객
- 우수 고객의 종합 자산관리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개별 맞춤 컨설팅 서비스 보고서 제공 등 심도 있고 상세한 상담 가능
- 상담 내용

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무 컨설팅 • 사전중여, 가업승계 관련 상담 및 세미나 진행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정부정책 상담 및 세미나 진행 • 물건별, 지역별 사업성 분석 및 매입, 매각 상담 • 관심 물건 및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 제공



업체 방문 동행 마케팅

- 대상 : 중소기업 CEO
- 영업 접장이 업체 방문 시, 세무사가 동행하여 중소기업 CEO에 특화된 세무 컨설팅 진행
- 상담 내용

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주식 등의 매각으로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경우 • 명의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 증여, 가업승계 등 개인과 기업 경계의 세무 상담
----	--



전화상담 CALL-UP 서비스

- 대상 :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CEO 및 근로자 등)
-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신속하게 궁금했던 요점만 제공, 원하는 시간에 상담가능한 유선 상담 서비스
- 상담 내용

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 상담 • 상속/증여세 등 절세 상담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정부정책 상담 • 물건별, 지역별 사업성 분석 및 매입, 매각 상담



금융 TOP 서비스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관리 및 운용 지원을 통해 금융 조력자 역할 수행

구분	내용
교육 및 세미나 지원	• 금융시장 전망, 상품 교육 및 세미나 실시
고객관리	• 고객 자산 수익률 관리(리밸런싱 제안)
생생 제안서	• 투자 성향/니즈별 1:1 맞춤 제안서 제공



문화 이벤트

- 매년 상/하반기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음악회 (5월 3일 개최, 11월 개최 예정)
- 거점 지방 콘서트 개최(일정은 매년 상이)
2018년 대구·경북지역 고객 대상(4월 10일 개최), 부산·울산·경남지역 고객 대상(5월 15일 개최), 호남지역 고객 대상(11월 1일 개최 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맥주처럼 달콤 쌉싸름한 두 도시 체코 플젠과 아일랜드 더블린

쌀쌀한 가을엔 역시 맥주다. 맥주를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꼭 가야 할 두 도시가 있다. 체코의 플젠과 아일랜드 더블린이다. 플젠은 우리가 가장 흔히 마시는 라거 맥주인 펄스너 맥주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더블린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네스의 탄생지다. 두 도시에는 아직 이들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맥주 투어를 해볼 수 있다. 맥주의 고향에서 마시는 맥주 맛. 뭐가 달라도 다르다.





& Dublin

아일랜드 더블린

달콤 쌉싸름한 도시, 플젠

플젠(Pilsen)이라는 도시. 우리에게 여행지로서는 다소 생소한 곳이지만 맥주를 좋아하는 주당이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다. 프라하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차로 한 시간 반이면 닿는다. 우리는 흔히 맥주 하면 독일을 떠올리지만, 체코 역시 독일 못지않은 맥주 강국이다. 전 세계에서 개인 맥주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체코다. 국민 1인당 연간 150리터의 맥주를 소비한다. 체코인들의 맥주 사랑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하다. 한국인의 식사에 김치가 빠지지 않듯, 체코인의 식사에는 결코 맥주가 빠지지 않는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술이 물보다 싸고, 그래서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다.

체코 맥주의 대표선수는 '필스너'다. 라거 계열 맥주를 대표하는 필스너는 전 세계 맥주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인데, 필스너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 플젠이다. '필스너'라는 맥주의 이름은 플젠이라는 지명에서 나온 것으로 프랑스 샴페인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처럼 원산지에 대

한 표기가 전체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명사로 자리 잡은 경우다. 체코인들은 플젠에서 생산된 원조 필스너 맥주의 명성을 보호하고자 오리지널(Original)을 뜻하는 우르켈을 더해 오늘날의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즉 '필스너 우르켈'은 '오리지널(원조) 필스너 맥주'라는 뜻이다.

플젠이 처음부터 맥주로 유명했던 것은 아니다. 플젠에서 맥주가 처음 생산된 것은 12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이다. 당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시였던 플젠은 250여 가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250여 가지의 각기 다른 맥주를 생산했다. 당시 다양한 제조 공법으로 만들어지던 맥주는 품질이 매우 낮았고 맛은 형편없었다. 그러다 1838년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데, 플젠의 시민들이 맛없는 맥주를 더 이상 마실 수 없다며 약 5,700리터의 맥주를 광장에 쏟아부었다. 지역의 양조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맥주를 만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에 위기를 느낀 양조업자들은 독일 바바리안 지역의 전설적인 브루마스터였던 요셉 그롤을 초빙했고 그롤은 플젠 지역의 물과





홉, 보리를 사용해 낮은 온도에서 발효하는 하면발효식 맥주를 개발한다. 그리고 1842년 드디어 현대 맥주의 시작이자 최초의 라거인 필스너 우르켈이 탄생한다.

당시 만들어진 필스너 맥주는 독일의 뮌헨에서 먼저 만들어진 다크 라거와 달리 밝고 투명한 황금색을 띠었다. 중후한 맛 대신 시원하고 상쾌한 맛이 강했다. 이는 플젠 특유의 좋은 물 덕분이었다. 이후 플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필스너를 생산해 기차로 운반하며 맥주의 중심지가 됐고 필스너 우르켈은 현재 우리가 가장 널리 마시는 라거 맥주의 기원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필스너 우르켈의 제조 과정은 현대화됐지만 그 제조법은 1842년 처음 탄생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다. 병, 캔 등 어느 용기에 담기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처음 만들어진 그 맛 그대로다.

우르켈 공장에서의 맥주 투어

굳이 맥주 한 잔 마시러 플젠까지 간다고? 이런 의문을 가진 이들도 일단 우르켈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입맛을 다시기 시작한다.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 공장은 53개국으로 수출되는 필스너 우르켈의 실제 공장이자, 맥주 양조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뮤지엄을 겸하고 있다. 우르켈 공장 앞마당에는 기차 길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출발한 기차가 유럽 전역으로 맥주를 수출했다고 한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맥주병과 캔, 맥주를 실제로 만들고 있는 과정을 커다란 유리벽을 통해 볼 수 있다. 홉과 맥아 등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데, 필스너 우르켈 공장에서 사용하는 홉은 플젠에서 20km 떨어진 사츠 지역에서 공수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효모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의 맥주를 시음하는 순서다. 필스너 우르켈 지하 터널 저장고에서는 전통방식 그대로 나무통에서 숙성되고 발효된 필스너 우르켈을 맛볼 수 있다. 맥주 공장은 한여름에도 영상 8도로 유지된다. 19세기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의 원류 그대로다. 오크통에서 바로 따라 주는 맥주는 홉의 진한 향과 구수하면서도 상쾌한 맛이 환상적이다. 갖따른 맥주는 눈부신 황금색을 자랑하며 풍부한 거품은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다. 한 모금 쭈욱 들이키면 '카아~'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살균도 여과도 하지 않아 효모가 그대로 살아 있고 맛과 향이 풍부하다. '아침부터 맥주를?' 했던 사람도 금세 한 잔을 비우게 된다. 풍성한 거품과 함께 입천장과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쌉싸름한 맥주는 금방 두 잔째를 청하게 만든다.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마시는 맥주는 장기 유통을 위해 맥아 성분을 필터로 걸러내고 열처리해 효모균의 활동을 정지시킨 맥주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맥주의 풍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플젠 양조장에서 시음하는 맥주는 풍미가 100% 남아있는 맥주다. 이 맥주의 유통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고 하니 플젠 현지 공장 투어에서 맛보는 맥주는 투어에 참여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맥주인 셈이다. 맥주에 어울리는 음식이 콜레노다. 돼지를 만 하루 맥주에 마리네이드해 오븐에서 크리스피하게 만든 음식으로 족발과 비슷하다.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고 담백한 것이 특징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 아 참, 체코를 여행할 때 체코어로 다른 것은 몰라도 '나 즈드라비(Na zdravi)!' 라는 표현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다음 아닌 '건배!'에 해당하는 말이다.

묵직하고 강렬한 흑맥주의 도시, 더블린

흑단처럼 검고 걸쭉하며 까칠한 보리 잎처럼 씹싸름한 입맛, 그리고 입술과 혀끝에 휘감기는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으로 긴 여운을 남기는 흑맥주. 아일랜드의 상징이 된 기네스 맥주의 병이나 캔에는 '175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 숫자는 27세의 한 젊은이가 가슴속에 큰 야망을 품고 본격적으로 도전에 나선 해를 의미한다. 창업자 아서 기네스(Arthur Guinness)다. 그는 1755년 더블린의 북동쪽에 위치한 레이크스리프에서 처음 양조장을 시작했다. 대부(代父)가 유산으로 남겨 놓은 100파운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자리를 잡자 그는 공장을 동생에게 맡기고 더블린으로 온다. 더블린에 도착한 아서 기네스는 더블린의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에 방치되어 있던 낡고 허름한 양조장을 매년 45파운드의 임대료에 계약한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무려 9,000년 동안이다. 기네스는 당시 영국에서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높았던 포터(Porter)를 발전시켜 스타우트(Stout)를 탄생시켰는데 당시 맥아에 세금을 매겼던 조세 제도를 피하기 위해 볶은 보리를 사용했다는 설과 기네스가 맥아를 볶던 중 깜빡 졸다가 맥아를 까맣게 태운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곧바로 아일랜드를 석권한 기네스 맥주는 창업한 지 10년만인 1769년에는 영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 최초로 글로벌화 된 맥주로 자리매김한다. 현재 아서 기네스가 설립한 세인트 제임스 양조장에서는 매년 9만 톤의 보리와 600톤의 호프가 맥주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기네스는

51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매일 1,000만 잔씩 팔리고 있다고 한다.

기네스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더블린 북쪽에 위치한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는 기네스의 역사 및 제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방문객들은 입장료를 내고 기네스 맥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와 거대한 기네스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은 기네스 맥주를 시음하는 시간이다. 재미있는 것은 마시기에 앞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기네스 따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기네스는 '기네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기네스만의 푸어링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네스만의 푸어링 방법은 전용 잔에 2번 나눠 기네스를 따르는 것이 포인트. 먼저 45도로 기울인 잔에 80% 정도 기네스를 따른 후 질소가 충분히 섞이게 테이블에 놓은 뒤 약 2분(119.5초)을 가만히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는 나머지 부분을 보드라운 거품으로 촘촘하게 채우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완벽한 한 잔'이 완성된다. 기네스를 즐긴 사이 아카데미에서 발급해 주는 '기네스 교육 인증서'도 맥주 마니아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다. 성미 급한 여행자들은 이 잔을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셔 버리지 말고 조금만 참자. 7층 그라비티 바(Gravity Bar)로 가면 360도 통유리를 통해 더블린 시내를 굽어보며 마실 수 있으니 말이다. WIN CLASS





Adam and Eve's
*riverun, past Eve and Adam's, from swerve of
 shore to bend of bay...*
 - 'Finnegans Wake'

Trinity College, Dublin
*The grey block of Trinity on his left, set heavily
 in the city's ignorance like a great dull stone set
 in a cumbrous ring...*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 건강관리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지만, 심한 일교차로 인체의 적응력이 떨어지며 건강에 관하여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신체가 적절한 체온 유지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쉽게 피로해지고 저항 능력이 떨어져 감기 등과 같은 환절기 질환에 걸릴 수 있다.

환절기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감기

감기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일교차가 심해지거나, 건조한 상태가 오래가서 콧속의 점막이 마르거나, 인체가 심한 과로로 인해 저항력이 떨어진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이때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콧속 또는 인두나 편도를 침범하여 생긴다. 감기의 종류로는 콧물감기(콧물, 코막힘, 재채기), 목감기(인후통, 인두 건조감 등), 기침감기(기침)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는 1년 평균 성인은 2~4회, 소아는 6~7회 이상 앓고 지나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 별 후유증 없이 수일 간의 증상이 있고 난 뒤에 자연 치유가 된다.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증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부비동염(축농증), 중이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의 합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합병증이 없는 감기의 치료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증상에 따라 치료하면 된다. 실내의 습도를 높여주고 물은 많이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쉬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다.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 있으나 2주 이상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 합병증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과로, 과음과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집안 온도는 20℃, 습도는 50~60%를 유지시키고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옷을 더 챙겨 입고, 집안을 자주 환기시킨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기관지에 좋은 식습관으로는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쉽게 하므로 따뜻한 물과 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한다. 가급적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나 나이가 많거나 신장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절반 정도 섭취한다. 도라지와 무, 배 등이 기침, 가래에 좋으며 면역을 좋게 해주고 항균효과가 있는 생강 그 외에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레몬, 유자, 귤, 채소 등이 도움이 된다.

또한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인플루엔자는 감기바이러스와는 다르지만 심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6개월 이상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 종사자 그리고 당뇨병, 협심증 등 심장질환, 신장염, 만성 신장질환, 간경화 등 만성 간질환이나 기관지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다.

등산 시 유의해야 할 관절 건강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산행을 많이 하게 된다. 이때 모든 관절에 갑자기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산행 전에 꼭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관절이 유연해지도록 해야 한다. 산행은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는 운동이기에 상체가 더욱 앞으로 쏠리면 특히 무릎관절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어 무릎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언덕길에는 체중이 무릎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두 개의 등산스틱을 이용하고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게 걷는 것이 좋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발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도록 걷고 몸 전체가 탄력을 받고 걸을 수 있도록 발바닥을 둥글리면서 마지막에는 엄지 발끝으로 차고 나가듯이 걸어야 한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땅 표면이 고르지 않은 길로 인해 발목이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등산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운동을 하고 사우나나 족욕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야생동물들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열성 질환

또한 야외활동 시 유행하는 열성 질환인 쓰쯔카무시병,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을 조심해야 한다. 쓰쯔카무시병은 들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의 피부를 물어서 생기는 병으로, 감염된 뒤 열흘 정도가 지나면 고열이 나고 입파선이 붓게 된다. 두통, 피로감,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유행성 출혈열은 이나 쥐의 배설물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와 피부, 입 등으로 침투해서 감염되는 질환으로 증상으로는 급격한 고열, 발작, 일시적인 신장 및 간장의 기능장애를 동반한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논일을 할 때나 등산, 낚시나 캠핑 등을 할 때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들판을 피하고 풀밭에 드러눕는 일을 자제한다.

또한 긴 옷을 입어 피부가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고여 있는 물에 장시간 발을 담그지 않는다. 일할 때 장갑이나 장화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기 북부나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이나 농업인은 2~3년에 한 번씩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수분을 뺏기기 쉬운 피부

가을철 심한 일교차는 우리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땀도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가을철의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여름에 좋아졌던 피부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토피 체질인 사람에게 생기는 습진 모양의 가려움증이 있는 피부발진이다. 유아기의 아토피성 피부염은 양 볼에 가려움을 동반하는 홍반(붉은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물집이 잡히거나 이것이 터지면 딱지가 앉기도 한다. 목, 이마, 손목, 엉덩이 등 다른 부위로도 번지고 치료해도 자주 재발하게 된다. 소아 아토피성 피부염은 팔꿈치와 무릎, 얼굴, 목 등의 피부가 두꺼워져 까칠까칠해지며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는 팔, 다리의 접히는 부분이 가려워지게 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노년층에게서는 피부 건조증이 심해져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노인성습진, 건성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피부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잦은 목욕이나 때 수건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로션을 사용하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울이나 모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급적 순면 제품의 옷을 입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도 좋다. 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도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밖에 가을철 주의해야 할 질환

이외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환절기에 심혈관계통의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특히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급격한 온도변화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병, 과음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진다. 급격한 온도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 수축에 의해 그 만큼 혈류가 줄어 심장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량이 감소하여 심장 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포화 지방산(육류의 기름, 닭 껍질, 소시지, 베이컨, 치즈, 크림 등)과 콜레스테롤(달걀, 메추리알, 어육류 내장, 오징어, 새우, 장어 등)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잡곡, 현미, 콩류, 해조류 등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한다.

운동을 할 경우에는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후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땀이 나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다. 노년층의 경우 외출 시에는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가을에는 식욕이 좋아짐에 따라 과식하기 쉬운데 특히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다. 지금까지 해 오던 운동,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이 있다면 계속하여 성인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WIN CLASS





NETFLIX

넷플릭스 한국 상륙, 그 이후

넷플릭스가 바꾸고 있는 K콘텐츠 사업의 향방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가 한국에 처음 진출했던 2016년 초만 하더라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기존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의 시선이 온통 이 넷플릭스에 주목되고 있다. 과연 넷플릭스는 우리네 콘텐츠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

<미스터 션샤인>이 보여준 넷플릭스의 영향력

tvN <미스터 션샤인>은 총제작비가 약 430억 원이다. 애초 SBS에서 편성이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tvN으로 편성이 넘어가게 된 건 엄청난 제작비 때문이다.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이 같은 투자비를 더 끌어모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상파 방송사인 SBS로서는 그 작품이 100% 성공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작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충분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자회사격의 외주제작사를 통해 다양한 투자처를 끌어올 수 있는 CJ ENM은 손쉽게 투자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넷플릭스를 통해서였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넷플릭스는 <미스터 션샤인>에 최소 287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추정된다. <미스터 션샤인>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개화기 풍경의 세트를 직접 만들어 재현해냈고, 김은숙 작가의 필력과 이응복 PD의 연출력 그리고 이병헌, 김태리 등 유명 배우들을 기용해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10%대를 넘겨버렸다. 이런 대작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건 전적으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때문이다. 미드와 일드를 경험하며 보다 높은 완성도와 스케일을 요구하게 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겨울연가> 이후에는 일본이 투자처로 떠오른 바 있고, <별에서 온 그대> 이후에는 중국이 투자처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일본과 중국 같은 투자처는 민감한 지정학적, 역사적 사안들이 언제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사드 문제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을 의식해서만 들어진 콘텐츠가 우리네 고유의 정서와 부딪치는 면도 한계로 지

목되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달랐다. 전 세계 190개국에서 동시 방영되는 이 글로벌 플랫폼은 특정 국가와의 관계로 인한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고, 특히 넷플릭스는 제작진에 대한 개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개화기라는 민감한 시기를 오히려 한중일이 모두 들여다보게 만드는 ‘글로벌 시공간’으로 끌어안은 김은숙 작가의 자신감은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없었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세계일 수 있었다.

넷플릭스가 바꾸고 있는 K콘텐츠들

<미스터 션샤인> 이외에도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방송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관련 구매는 실로 공격적이다. 넷플릭스는 JTBC와 600시간 콘텐츠 계약을 맺었고 tvN, OCN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JTBC <맨투맨>은 회당 35만 달러에, 그리고 tvN <비밀의 숲>은 회당 20만 달러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이어, 아예 넷플릭스가 직접 투자해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곧 방영될 예정이다. <시그널>로 화제를 일으킨 김은희 작가의 신작 드라마 <킹덤>은 넷플릭스가 회당 12~15억 원을 투자해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다. 6회분 시즌1을 이미 제작 완료한 이 작품은 이미 시즌2 작업에도 들어갔다. 이밖에도 <런닝맨>을 제작했던 조효진 PD의 <범인은 바로 너>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도 제작되었다. <범인은 바로 너>는 좋은 반응을 얻은 시즌1에 힘입어 시즌2 제작이 확정된 상태다.

흥미로운 건 넷플릭스가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이른바 K콘텐츠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의 경우 지상파가 주로

멜로드라마와 가족드라마, 사극 등을 그 중심적 장르로 이끌어왔다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들어가는 최근 우리 드라마들은 장르물들이 주를 이룬다. 이수연 작가의 <비밀의 숲>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17 국제TV드라마 top 10'에 들어가는 성과를 내면서 넷플릭스에서의 K콘텐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는 김은희 작가의 <킹덤>은 '조선시대판 좀비물'이라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껴안은 장르물이다. 사극적인 우리네 특성과 좀비물이라는 글로벌 장르의 만남이라는 것. 넷플릭스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는 이러한 본격 장르물들이 점점 시청층을 확보하면서 이제는 국내 드라마의 장르물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놀라운 가성비와 거점으로서의 K콘텐츠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째서 K콘텐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 가장 큰 것은 가성비다. 김은희 작가의 <킹덤>을 예로 들면, 회당 제작비가 12~15억 원으로 국내 드라마 제작비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내 드라마 중 꽤 높은 회당 제작비를 기록한 김은숙 작가의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가 회당 9억 원이 들어갔다는 걸 상기해보면 그 상대적인 투자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작비조차 넷플릭스로서는 소소한 수준이다. 이를테면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 회당 제작비가 무려 80억 원에 이른다. 넷플릭스로서는 이만큼 적게 들고 그만한 완성도를 뽑아내는 K콘텐츠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무려 600억 원을 투자한 넷플릭스의 속내이기도 하다. 국내 제작비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이지만(참고로 <신과 함께>가 350억 원 수준이다), 이 수치는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드는 1년 예산(약 8조6천억 원)의 1%도 되지 않는 액수다.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옥자>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라는 이름값이 더해져 영화관 말고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걸 톡톡히 홍보했다. 가성비만큼 K콘텐츠에서 느끼는 장점은 아시아 시장의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이다. 이미 아시아권에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 시장까지 어느 정도 K콘텐츠의 팬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투자를 통해 그 시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를 통해 한국 시장을 관

리해왔던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사무소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K콘텐츠 발굴에 뛰어들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로이 넷플릭스 부사장이 했던 “우리 역할은 한국 콘텐츠 팬층을 전 세계로 넓히는 것”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넷플릭스에 긴장하는 K콘텐츠 업계들

지상파는 넷플릭스의 진출에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다.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 그 제작 규모에 있어 한계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스터 션샤인>이 SBS에서 tvN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한계치를 넘는 규모의 드라마들이 비지상파에서 방영되기 시작하면 지상파 드라마들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작품들만 편성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지상파 드라마들이 시청률 10%는커녕 5%도 내지 못하는 난항을 겪게 된 건 완성도 높고 스케일도 큰 드라마는 비지상파로 가버린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다. 제작비와 제작 여건을 따라 스타 작가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작가를 따라 A급 배우들이 포진하면서 드라마의 위상은 지상파를 비지상파가 압도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점점 높아져 가는 제작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역시 자회사 형태의 외주제작사를 만들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KBS가 몬스터 유니온을 통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건 그래서다.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경우 넷플릭스는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넷플릭스의 투자는 단지 제작비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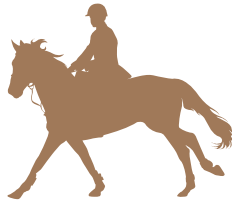


제만이 아니라 제작 콘텐츠의 색깔까지 바꾼다는 점에서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플랫폼에 걸맞은 콘텐츠 기획이 새로운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드라마 제작의 관성 속에서 작은 규모의 기획들만 내놓았던 제작사들은 그래서 김은숙 작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가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었듯이 이제 <미스터 션샤인>이 넷플릭스를 끌어들이 성공작으로 남는다면 그건 새로운 기회요소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다. 배우들 역시 넷플릭스가 가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출은 국내 OTT(Over The Top) 업체들에도 큰 자극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옥수수, 티빙, poq과 같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경쟁력 앞에서는 소소한 수준이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적할만한 국내의 OTT가 생겨나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콘텐츠의 문화적 잠식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의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WIN CLASS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즐기는 승마





흔히 승마를 ‘인마일체(人馬一體)’의 스포츠라고 한다.
 승마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달리 동물인 말과 함께 출전하는 유일한 스포츠로
 말과 선수의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에 탄 기승자가 말에게 의사를 전달해
 움직이는 소통 기술을 ‘부조’라고 하는데 이는 기승자의
 손과 다리, 음성, 체중, 채찍, 박차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가을, 말과의 교감을 통해 승마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사람과 오랫동안 교감해온 말(馬)

말의 학명은 에쿠스 카발루스(*Equus caballus*)다. 학자들에 따르면, 약 5,800만 년 전에 출현한 에오히푸스가 최초 조상이다. 이후 약 100만 년 전에 현재 계통인 에쿠스로 진화한 뒤 말, 당나귀, 얼룩말로 각각 진화했다. 야생에서 초식 동물로 살아남았으니 민감하고 겁이 많다. 기억력도 뛰어나며 호기심이 강하다. 시야가 매우 넓어 머리를 들고 있을 때는 거의 360도를 볼 수 있다. 가장 뛰어난 감각 능력은 청각. 귀와 눈과 꼬리로 감정 심리를 잘 표현한다.

보기와 달리 예민하고 태어날 때부터 겁이 많아 애정을 갖고 돌봐주는 사람을 잘 따른다. 동물 가운데 사람과 가장 흡사한 생물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임신 기간도 유사해 11~12개월에 한 번 ‘망아지’를 출산하며 수명은 평균 25세에서 40세까지다. 말은 생전 사람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고, 배설물은 천연 비료로 주고, 죽어서는 뼈와 기름, 가죽, 털, 태반, 고기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는 반려동물이자 경제 동물이다.

생활 스포츠로서의 승마

승마에서는 말과의 ‘교감’이 우선이다. 승마는 기본적으로 영험하고 고귀한 존재인 말과 교감하는 역사다. 승마의 기본 자세는 머리, 어깨, 허리, 발뒤꿈치를 연결한 선이 수직이 되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자세다. 말이 걷거나 뛸 때 걸음 형태를 ‘보법’이라고 하는데 4절도의 걸음걸이인 평보(walk)부터 속보(trot), 구보(canter), 습보(gallop)가 있다. 주요 종목으로는 ‘모래 위의 피겨’라 불리는 마장마술(Dressage), 장애물(Jumping), 종합마술(Three-Day



Event)이 있으며 승마 마라톤이라 불리는 지구력(Endurance), 마차 경기(Driving), 마상체조(Vaulting) 등도 있다.

최근 제주도와 강원도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외승(야외 승마)은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기초 승마를 막마친 뒤 마장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승마를 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초보 승마인들의 ‘로망’이다. 단, 외승은 보통 100시간 이상 기초 승마를 마쳐야 안전하니 유의해야 한다.

경마에서는 ‘서리브레드’라는 종으로 경주 전용 말을 개량, 육성해 활용하지만, 승마에서 타는 말은 좀 더 다양하다. 승용마의 대표적인 품종은 워블러드 종으로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등에서 생산한 하노버, 홀스타인, 셸프랑



답답했던 마장을 벗어나 산과 들, 해변에서 즐기는 외승은 승마의 꽃이다.

세, 포니 종류의 품종을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제주 조랑말인 제주마와 서러브레드와 제주마의 개량종인 '한라마' 그리고 경주에서 퇴역한 뒤 승용마로 순지한 서러브레드를 승용마로 다수 활용하고 있다.

승마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장비와 복장이 비싸다는 편견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 승마클럽은 초보자를 위해 헬멧과 부츠, 장갑, 조끼 등 기본 장비를 갖추고 대여하고 있다. 초급 과정을 잘 마쳤고 계속 승마를 하고 싶다면 승마 바지와 부츠, 헬멧 그리고 전용 가방 등을 우선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골프용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등자, 패드, 채찍 등 전용 액세서리 가격 역시 마찬가지. 단 자마 회원까지 발전한 뒤 혹은 자신만의 '안장'을 사려는 경우가 있는데 안장은 비교적 고가다. 국내 주요 승마용품점마다 값싸고 질 좋은 용품을 수입하거나 국산 상품화에 성공하고 있는 단계니 잘 알아보면 만족할 수준의 장비와 복장을 갖추 수 있다.

말에게도 매너가 필요해, 승마 에티켓

승마 에티켓, 매너라 하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수장'이다. 수장이란 승마를 한 뒤 말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일종의 '샤워'를 돕는 일. 땀 흘린 말에게 온수로 물을 뿌려주고 샴푸도 해주며 건조 후 솔질을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처음 승마를 할 때면 왕복 2시간 넘게 차를 탔는데 말 타는 시간은 겨우 30분이라며 쉽사리 흥미를 잃곤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승마'는 단순히 말을 타는 행위가 아니다. 대부분 승마클럽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직접 수장도 허락한다. 말똥 치우는 일도 나중에는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장구 관리도 빠질 수 없다. 굴레나 재갈을 솔로 닦거나 가죽용 비누를 이용해 땀을 제거하는 건 안전한 승마를 위한 에티켓이다. 말과 더 가까워질 때쯤이면 말이 특히 좋아하는 '특식' 당근이나 각설탕을 준비하는 센스도 잊지 않는 당신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신 운동으로 다이어트 효과 만점

승마에 빠진 사람 옆에 일곱 이상은 승마가 주는 효과에 매료됐다고 말한다. 말의 걸음걸이로부터 발생하는 반동은 사람이 활동하며 발생하는 골반의 움직임과 유사한데 이 때문에 말 위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직접 걷는 것과 같은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분 기준으로 약 500~1,000회 신체 움직임을 자극해 혈액 순환 및 말초 감각 활성화가 일어나 평형성과 유연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승마는 약력, 배근력, 순발력, 민첩성 등을 증가시키고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동시에 대담성과 집중력, 협동심 등을 기르는 정신 운동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심리·정서 효과를 통한 유·청소년의 인성 교육으로 승마가 주목받고 있으며 말과의 교감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 완화, 우울증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발달 장애 아동 등 신체장애인의 재활 운동에도 적극 활용되는 등 승마는 건전한 사고와 동



땀 흘린 말에게 온수로 물을 뿌려주고 솔질을 하는 수장

물 애호 정신 등을 함양하는 데 가장 큰 만족을 주는 확실한 운동으로 의료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팁을 소개하자면 한국마사회는 2020년까지 승마 인구를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려 전 국민이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국 120여 개 승마클럽에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회당 2만5천 원을 고정 지원한다. 평균 10회 기준으로 회당 5천 원씩 총 5만 원만 내면 승마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신청은 말산업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에서 하면 된다. 또한 집 근처 가까운 승마클럽을 가고 싶다면, 역시 호스피아 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 펀드

(2018년 8월 기준)



투자 성향	공격투자형
위험 등급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에셋 미국 배당프리미엄 KB스타 유로 인덱스 	8월 추천

투자 성향	공격투자형
위험 등급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 일본 인덱스 KTB 마켓스타 	

투자 성향	적극투자형
위험 등급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영 밸류 고배당 KB중소형주 포커스 IBK 그랑프리 KRX100인덱스 	

투자 성향	위험중립형
위험 등급	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트러스트 다이내믹코리아 50 	

투자 성향	안정추구형
위험 등급	5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양 단기채권 한국투자 e단기채 칸서스 튜튼 단기채 IBK 단기채 NH-Amundi Allset 모아모아15 	8월 추천

투자 성향	안정형
위험 등급	6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진 챔피언단기채 	



투자 성향 공격투자형
위험 등급 2등급

KB스타 유로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이 펀드가 궁금합니다!

투자신탁자산의 90% 이상을 유로스톡스50지수를 추종하는 추가지수 선물이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펀드 수익률 (2018년 8월 1일, A클래스 기준)

구분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	1.76%	0.11%	4.93%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

: 유로존 11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블루칩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유로 인덱스 펀드 환 위험 관리 전략

- 환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대부분 헷지하여 환위험 최소화 목표
- 해외 시장과의 시차 등을 감안해 환헤지 비율 80~110% 수준으로 관리
- 선물 증거금 및 투자손익, 현물(바스켓/ETF) 투자금액, 외화 등 대부분 해외자산 유로화 변동에 노출
→ 원·유로 선물환(또는 통화선물)을 이용하여 환위험 헤지

유로 인덱스 펀드의 운용 대상

- 지수 추종을 위해 EuroStoxx50 지수 선물 및 ETF를 활용
- 선물 및 ETF투자 관련 금액 이외의 부분은 국내 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

투자 대상	기준 통화	비고
EuroStoxx50 추가지수선물	유로(€)	증거금은 유로화로 관리
EuroStoxx50 지수 추종 ETF	유로(€)	투자 원금 및 손익분 모두 유로화
국내 단기채권/유동성 자산	원화(W)	선물 투자 시 증거금 이외의 부분 운용

“공적연금, IBK기업은행으로 수령하세요”

연금이체 은행/계좌 신청 및 변경방법

국민연금 (☎ 1355)

연금 신규 신청

- 인근 공단 본/지사 방문신청 (신분증 필수 지참)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 우편접수 신청 (필요서류 준비)
- FAX접수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연금 수급 계좌 변경



※ 연금지급일(매월 25일) 기준 5영업일 이전 신청시 당일 변경 가능, 이후 신청시 익월부터 변경
※ 본/지사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

공무원연금 수급 계좌 변경



※ 연금지급일(매월 25일) 기준 5영업일 이전 신청시 당일 변경 가능, 이후 신청시 익월부터 변경
※ 본/지사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

사학연금 수급 계좌 변경



※ 연금지급일(매월 25일) 기준 5영업일 이전 신청시 당일 변경 가능, 이후 신청시 익월부터 변경
※ 본/지사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

군인연금 수급 계좌 변경



※ 신분증, 변경통장 사본 (핸드폰번호, 수급계좌변경 적요 기재)
※ 15일 이전 신청시 당일 변경 가능

보훈연금 수급 계좌 변경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이전 신청시 익월 변경 가능, 이후 신청시 익월부터 변경 가능

장해연금 수급 계좌 변경



※ 연금지급일(매월 25일) 기준 5영업일 이전 신청시 당일 변경 가능, 이후 신청시 익월부터 변경

기초연금 수급 계좌 변경



※ 변경기한은 주민센터별로 상이



※ 수급 계좌 변경방법은 각 연금기관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3488호 (2018.07.26) 게시기간 : 2019.01.19 출판번호 : EW537

·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평생설계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분쟁조정 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99)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상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 경영 위반 사실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ibkegribs@ibk.co.kr)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 2018-4081호(2018.08.31) 계시기한 : 2019.08.30 출금번호 : EP2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